

# PHOTO ESSAY

사진산책

##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고성 공현진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여덟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왕산 전망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세상을 채우면서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감광판에서 필름으로 필름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왔다. AI 사진도 그 흐름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롤랑 바르트는 사진을 'that-has-been', 즉 그것이 실제로 거기 있었다는 증거라 말했다. 그 말처럼 사진은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필름이나 센서 위에 남긴 흔적이라고 여겨져왔다. 그런데 AI 사진은 현실의 빛이 아니라 데이터와 계산으로 직조된 이미지다. 사진가가 현실 세계로 나아가 그 자리에 발을 딛고 셔터

를 누르는 행위 자체도 사진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발로 걷고 날씨와 빛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것, 대상을 반복해 바라보며 의미를 발견하는 사유. 그렇게 사진은 단지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시간과 감각을 담아내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출사(出寫)'라 부른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러 나간다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많은 행위와 의미가 담겨 있다. 기다림과 실패를 반복하며 찍은 사진에는 그 시간과 공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를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일수록 직접 찍은 사진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출사는 그 자체로 이미 사진이다.